

Part 3 — Q&A

3월 5주차 Q&A — 코스피 5200 이후 슈팅의 진실

· 정리 2026-05-22

코스피 5,200 이후 슈팅의 진실

Q&A 3월 5주차 (2026-03-30, parent: Part 3-4강). 산책하는 얼룩말님 질문 — 5,200 이후 슈팅이 증권사 프랍트레이딩이라는 강사 판단의 근거.

강사 본인 답 — **추론이 아니라 산수**. 삼성증권 리포트 32.8조 분해 + 3/3 손절 투매 + 3/18 불트랩까지 데이터로 증명.

본 회차는 그 분해 + 향후 단기·중기·장기 전망 풀세트.

18.8조 인위적 견인

32.8조 순매수 = ETF LP 22조 (기계적) + 미설명 10.8조 + 선물 8조 매수. 합 18.8조 = 든든한 기둥 0.
그 사이 외국인 50조+ 매도.

5,200 이후 슈팅이 증권사 프랍이라는 근거는? — 강사 답: 32.8조 분해 + 선물 8조 매수가 증명한다.

1. 도입 — 산책하는 얼룩말님 질문

Q&A 3월 5주차 (2026-03-30, parent: Part 3-4강). 산책하는 얼룩말님이 질문했다.

'5,200 이후 슈팅이 외국인 선물 관련이 아닌 프랍트레이딩이라고 생각하신 좀 더 깊은 내용이 궁금합니다. 코스피 구매 물량이 너무 커서(한 달 만에 20조) 그렇게 추론하신 건지, 혹은 금융투자의 27일 선물 거래를 근거로 두신 건지?'

강사는 한국 증권사가 보수적이라 프랍트레이딩(고유 계정 투자)을 거의 안 하는데 5,200 이후 그게 일어났기에 이상하다고 봤다. 본 Q&A에서 **32.8조 분해 데이터로 증명한다.**

2. 추론이 아니라 산수 — 트럼프·이란 사례

강사는 미래 예측이 아니라 **현재로 인해 결정된 미래**를 본다.

예시 1 — 트럼프 당선 (2024년). 일주일 전 책 발간하면서 첫 문장에 '47대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'라고 적음. 모든 미국 여론조사에서 바이어스를 제거하고 평균 내니 트럼프가 1.5% 이긴다는 사실 파악 → 적중.

예시 2 — 이란 침공. 미국에서 해외 보낼 수 있는 진짜 항모전단은 3 개. 그중 2 개가 이란 옆으로 가면? 가용 전력의 67% = 영끌. **즉, 전쟁 직전**. 예측이 아니라 산수.

본 코스피 슈팅도 마찬가지 — 일어난 일을 데이터로 보여주는 거지 예측이 아니다.

3. 5,200까지는 자연스러운 상승

5,200까지 가는 데는 시장 자체의 힘이였다.

저력 — 한국 반도체·AI 수혜 기대감 + 밸류업 정책. **FOMO** — '이번엔 진짜다' 개인 광기 유입.

수급 — 이 시기까지는 큰 문제 없음. 외국인이 팔긴 했지만 기관·개인이 떠받침.

원래 버블은 광기로 이어진다 — 5,200은 그 자체였다.

이제부터가 본 회차 분해 대상이다 — **5,200 이후 슈팅.**

4. 1/29~2/2 외국인 5조 매도 + 우려 시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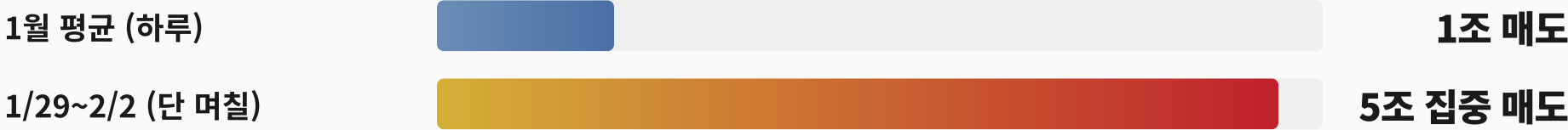
5,200 그 순간 — 외국인이 팔기 시작했다.

1/29~2/2: 외국인 순매도 -5조 원 / 코스피 5,224 → 4,949 (-5.26%). 1월 내내 하루 1조 정도 팔던 것에서 단 며칠에 5조 집중 매도 + 5,000대 무너짐.

잔뼈 굵은 증권맨이라면 이때부터 우려를 시작한다. 과거 패턴 — 지수 고점에서 외국인 매도 + 주가 -5% 급락 = 대세 상승 종료 의심 신호. 2007년 본 버블 — 매도기간 6 개월,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.

그렇다면 외국인이 파는데 누가 받았을까? 금융투자(증권사) — 그게 이상하다. 한국 증권사는 미국 IB와 달리 고유 계정 투자 극도로 꺼리는 게 정상이다.

1/29~2/2 외국인 집중 매도



5,000대 무너짐 + 대세 종료 의심 신호

5. 32.8조 분해 — 삼성증권 리포트가 밝혔다

삼성증권 '최근 시장급락 원인 분석' 2026-02-27. 두 달간 증권사·금융투자 총 순매수:

총 순매수 (KOSPI+KOSDAQ) 32.8조 원 = ETF LP 바스켓 매수 **22조 원** (기계적·의무적, 유튜버 말이 맞는 부분) + **미설명 10.8조 원** (ETF LP가 아님 — 증권사·유튜버가 설명 못 함).

32.8조의 3분의 1은 유튜버들이 설명 못 했다. 그게 강사가 짚은 지점.

ETF LP의 진실 — 절반만 진실. ETF 가격은 기초 자산과 같아야 함. 사람들이 ETF를 왕창 사 ETF 가격이 오르면 증권사가 현물(삼성전자·SK하이닉스)을 사서 둘 가격을 맞추م. → 금융투자 순매수로 잡힘. **22조는 기계적·의무적 매수** — 투자 판단 X. 여기까지는 일부 유튜버들 말이 맞다. **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.**

■ 32.8조 분해 (삼성증권 리포트 2026-02-27)

구분	금액	성격
총 순매수	32.8조	—
ETF LP 바스켓 매수	22조	기계적·의무적 (유튜버 맞음)
미설명	10.8조	ETF LP 아님 — 설명 못 함

6. 10.8조의 정체 — 두 가지 유력 후보

후보 1 — 꼬리가 몸통을 흔들다. 외국인이 선물 대량 매수 → 선물 > 현물 → 증권사가 선물 매도 + 현물 매수(차익 거래) → 금융투자 순매수로 잡힘.

후보 2 — 증권사 프랍트레이딩. 한국 증권사는 미국 IB와 달리 고유 계정 투자 극도로 꺼림.
10.8조는 너무 크다. 주가 오르면 수수료 수입 증가 = 구조적 이해관계 (의도적 띄우기 가능성).

어느 쪽이든 든든한 장기 투자 기둥은 아니다.

7. LP라면 선물을 팔아야 했다 — 그런데 샀다

여기서 더 이상한 점이 있다.

현물 22조 산 상황에서 정상 헤지면 **선물 매도** (리스크 중화). 그런데 2026-01~02 실제로는 **선물 8조 매수** — 비정상. 주가를 끌어올리려 일부러 하기 전엔 이런 행동 안 함.

정리: 현물 32.8조 - ETF LP 22조 = **10.8조 미설명** + 선물 8조 매수 = **총 18.8조 동시 매수**.
나중에 선물은 조용히 매도.

18.8조 원 중 '튼튼한 장기 투자'는 단 한 톨도 없었다. 그 사이 외국인은 37조를 팔았다 (3월까지 합치면 50조+, 잘못하면 60조).

■ 정상 헤지 vs 2026-01~02 실제

구분	정상 ETF LP 헤지	실제 행동
현물	매수 22조	매수 22조 ✓
선물	매도 (리스크 중화)	매수 8조 ✕
결과	천천히 상승	차트 예쁘게 → 급등

8. 3/3 폭풍 손절 투매 — 증권사 알고리즘

강사는 이 데이터를 기다렸다. 증권사가 비싸게 샀기에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손절 투매 — 증권사 알고리즘에 기계적 손절매 입력됨.

개인이 폭풍 매수하는 날 금융투자가 폭풍 매도 — ETF LP면 매수 잡혀야 정상. 매도가 더 컸다 = 프랍트레이딩 손절 규모가 ETF LP보다 컸음.

3/3 단 하루: 개인 +46,242 / 외국인 -31,788 / 기관 -15,338 / **금융투자 -11,560**. 3/3~3/6 합계: 개인 +57,974 / 외국인 -51,481 / 기관 -9,203 / **금융투자 -7,283**.

증권사가 일개 개미보다 못한 방식 — 비쌀 때 사고 쌀 때 투매. 28년 증시 본 강사도 처음 보는 패턴.

9. 3/18 마지막 함정 — 볼트랩 해부

피보나치 61.8% 되돌림이 5,800. 6,300 → 5,100 하락 후 61% 회복 = 5,800. 일반적으로 이 지점에서 데드캣 바운스 후 다시 하락. 미국계 증권사 알고리즘에도 이게 들어가 있어 5,800 가까이 가면 알고리즘 매도가 다시 나옴.

3/18에 증권사가 3조 원 집중 매수로 5,800 피보나치를 그냥 돌파시켜 5,925까지 — 하루 5.04% 상승. 매우 비정상. 알고리즘과 스마트 개미들이 '상승 추세 전환'으로 오판하게 만들었다.

증권사들이 다 짜고 친 게 아니라도 같이 움직임 — 합리적 선택 + 28년 데스크 본 베테랑들의 직관. 외국인 매도 양상도 같은 원리.

결과: 3/19 5,763으로 피보나치 5,800 밑으로 바로 폭락(-2.73%). 인위적 끌어올림은 절대 피보나치를 이기지 못한다.

3/18 볼트랩

날짜 비고	체결가	등락률
03-17 반등 지속	5,640	+1.63%
03-18 증권사 3조 집중 매수	5,925	+5.04%
03-19 다음 날 즉시 폭락	5,763	-2.73%
03-20 미미한 반등	5,781	+0.31%

10. 결론 — 진실 90% + 거짓 10%

가장 쉽게 속는 경우 — 진실 90%를 쫓 말하다 마지막 10%를 거짓으로 인과 관계를 바꿔버리는 것.

사실 — 22조 ETF LP는 사실 (유튜버 맞음) / 10.8조 = ETF LP 아님 / 선물 8조 매수 = 비정상 헤지 / 18.8조 중 장기 자금 0. **거짓** — '그게 전부' 주장 / '증권사가 다 ETF LP' 변명 / '정상 헤지' 주장 / '튼튼한 기둥' 주장.

증권사가 왜 이렇게 했는지는 강사도 모름. **음모론 배경**. 다만 어마어마한 돈 중 든든한 기둥은 거의 없었고 그 사이 외국인은 50조+ 매도. 증권사가 가격을 띄워 외국인이 훨씬 비싸게 팔고 나가게 해준 거라면 분명히 문제.

11. 향후 단기·중기 — 변동성 + 전쟁 종결

단기 — 극심한 변동성. 한 번 6,300을 본 학습 효과 + 피보나치와 공포 교차 + 증권사 반복 매수매도 → 변동폭이 일반 하락장보다 훨씬 큼. **차분한 대응이 중요.**

중기 — 전쟁 조기 종결 여부. 상승세 회복 최우선 조건이지만 **전쟁 종료가 곧 유가 안정은 아님.**

1973 욘키푸르 전쟁이 끝난 뒤 오히려 유가가 더 올랐다 (미국이 지고 물러나자 아랍이 신남, 그때 이란은 미국 편). 이란이 이 역사를 알고 있을 것이므로 휴전 후에도 호르무즈를 반쯤 막을 가능성. **걸프 산유국 영구 손실(셧인) 여부**가 중요.

12. 장기 — 메모리 절감 기술 + 강사 입장

장기 — 메모리 절감 기술 핵심. 외국인은 한국을 **메모리 반도체 ETF**로 봄. 3/26 자 논문 — 메모리 절감 기술 발표 → 마이크론 주가 하락. 미국 실리콘 밸리 천재들이 메모리 병목 해결하면 한국이 가진 최대 지렛대가 사라진다. **물보라가 아니라 웨이브 또는 너울(Swell)**이 될 가능성.

다만 희망 — AI 보급 속도가 S커브 따라 폭증하면 절감 기술 나와도 메모리 수요 ↑. **양쪽 측면 균형이 핵심.**

강사 입장 — 28년 기자 생활(1998년부터) 동안 이런 일을 처음 목격. 증권가 불문율은 '하락 예측은 맞춰도 욕먹는다'지만 투자자 보호 + 국부 유출 우려로 총대 멤. 미래 예측이 아니라 **수급이** 이상한 건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걸.

소망만으로 투자할 수 없다. 경고 신호와 희망 양쪽을 잘 균형 잡게 보는 것이 승리의 방법.

차분한 대응 + 양쪽 균형

Q&A 3월 5주차. 32.8조 분해 + 3/3 손절 투매 + 3/18 볼트랩까지 — 5,200 이후 슈팅이 증권사 프랍이라는 강사 판단의 데이터 증명.

어마어마한 돈 중 든든한 기둥은 거의 없었고 그 사이 외국인은 50조+ 매도. 변동성 큰 장세에서 차분한 대응 + 양쪽 균형이 승리의 방법 — 강사 결론.

장기는 메모리 절감 기술과 AI 보급 속도(S커브) 경쟁이 코스피 향방을 결정. 다음 회차들에서 시점별로 계속 정밀화될 것이다.

어마어마한 돈 중 든든한 기둥은 거의 없었고 그 사이 외국인은 50조+ 매도. 변동성 큰 장세에서 차분한 대응 + 양쪽 균형이 승리의 방법.

다음 Q&A·정규강의

전쟁 종결 + 코스피 수급 후속 정밀화

본 회차의 32.8조 분해 + 메모리 절감 기술 골격 위에서, 다음 회차들이 시점별로 정밀화된다.

본 정리는 박종훈의 지식한방 Q&A 3월 5주차 회차(2026-03-30, parent: Part 3-4강) 콘텐츠 정리본이다. 강사 본인 분해 데이터 (삼성증권 리포트 인용) + 강의 자체 정량으로 구성. 외부 자료 보강은 본 회차에서 사용하지 않았다 — 강의 본문이 데이터 풀세트로 충분.